

[사회]

사례 1
USB 메모리에
도박프로그램 저장
손님들에 나눠 줘



단속 비웃는 '은밀한 PC도박장'

온라인 PC도박장에 대한 검·경의 대대적인 단속을 비웃듯,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만 하면 도박게임 실행 가능=국내의 대표적 PC도박 프로그램 제공사인 '조아조아'는 최근 인터넷 접속만 하면 게임이 가능한 사이트(www.joa3.net·현재 폐쇄)를 개설·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버 수사대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
◇단속=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도박 PC방과 사행성 게임장 등 912개 업소를 적발하고, 업주 등 62명을 구속했다.

사례 2
일선 PC방과 계약
접속만 하면 게임 가능
사이트 운영하기도

단속 피하기 갈수록 교묘해져

◇USB 메모리, 폰뱅킹 이용=광주시 동구 산수동 N PC방 업주 박모(36)씨는 도박 프로그램인 '뉴뱅킹'을 USB 메모리에 저장, 집이나 사무실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나눠 줘다가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무실과 가정집에 파고든 도박장=경찰의 단속이 최근 강화되자 도박 PC방 업주들은 아예 간판을 달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사무실과 원룸 등에 PC방을 차리고 있다.

"90%이상 돈 잃는 일종의 사기"

하지만 이 같은 대대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 PC방은 진화를 거듭하며, 경찰과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동부경찰서 김기수 생활질서계장은 "PC도박은 90% 이상 돈을 잃는 일종의 '사기'라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출임을 자제해야만 도박 PC방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3
프로그램 제공업체
대부분 외국 서버 이용
경찰 추적 어려워

수능 1등급, 서울대 정원 1.7배 지원

2006 정시모집 분석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 지원한 학생 가운데 수능능력 시험 3개 영역 이상에서 1등급의 성적을 받은 이가 모집정원의 1.7배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천185명)의 1.6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인원 대비 3개 영역 이상 1등급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모집단위는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583%)였고 사회과학대학 인류·지리학과(409%),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화학부(409%), 의예과(363%), 종교학과 등 인문대학 인문계열(330%) 등이다.

2005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는 지원자 중 3개영역 이상이 1등급인 학생은 4천578명으로 모집정원(2천349명)의 1.95배였다.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개소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센터 사무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이병학 광주시 정무부시장, 박영민 과학기술부차관, 박형순 광주 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장, 김갑섭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남한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전길자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장.

지역 여성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전개할 '광주 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개소식이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센터 사무실에서 열렸다.

실업고생 대학가기 쉬워진다

2008학년부터 정원의 입학 5%로 늘려

2008학년도부터 실업고교 졸업자에 대한 대학 정원의 입학비율이 3%에서 5%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내년부터 교육대학·기술대학·각종 학교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국내의 2개의 학위나 공동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광주시교육청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추진 6개월 별 성과 못거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의욕적으로 마련한 '21세기형 인재양성전략 프로젝트'가 사업추진 6개월 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21세기형 지역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3월 양 기관이 인재양성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추진해온 10대 프로젝트 중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 등 상당수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경우 지난달 점수결과 단 한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 개설도 지난해 법 시도만 추진위까지 출범했으나 관련법 개정과 정부 예산 반영은 요원한 상태다.

위 인정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광주학생회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10년 넘게 끌여온 학생회관 이설 문제가 완료되지 않아 답보 상태다.

'21세기형 인재양성전략 프로젝트'는 교육기반 구축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21세기형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3월 행정과 교육, 양 기관이 공동 발표한 프로젝트로 오는 2011년까지 5천24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광주시는 '21세기형 지역인재양성 프로젝트' 10개 사업을 민선 4기 공약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지난 4월 교육협력팀을 신설했다.

Weather forecast for 9월 14일 (Sun 7월 22일) with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regional weather.

카레, 전립선암 예방 효과 크다

카레의 노란 천연색소 성분인 '커큐민'(curcumin)이 전립선암의 발생과 전이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다.

논문에 따르면 커큐민을 먹인 쥐들은 전립선암의 용적이 위약 그룹에 비해 41% 정도 줄었으며 폐에 전이된 결절 수도 8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의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검사 기고문에 발각 뒤집힌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금태섭 검사가 '수사받는 법' 기고문을 한 일간지에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검찰 전체가 발각 뒤집혔다.

이 부분 검사들은 "금 검사 기고문 내용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증거가 명백한 피의자나 현행범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오해의 소지가 불리할 수도 있다"며 꼬집기도 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악자인 피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금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올해 1월 국정원 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X파일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언급하자 천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바 있다.

Jeju Mt. Travel advertisement for 2006, featuring a 74,000 won package deal for a 2-night 3-day trip to Jeju Island.

Dream Korea advertisement for water damage repair services, featuring various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gional branches.